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 (2): 성경의 권위

IN 신학정론

vol.15 no.2 (November,1997): 533-583

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어히 여감을 얻으시리라”(\*)

##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2): 聖經의 權威

신 복 윤  
 <조직신학·교수>

- I. 서언
- II.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A. 말씀의 의미 B.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 C.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法則이다
- III. 성경의 基源은 하나님이다
  - A. 성경의 영감 B. 성경의 無誤

### I. 서언

성경의 神的權威는 합리주의의 찬 바람이 진 유럽을 휩쓸고, 聖經이 진리의 판결자로 군림하기까지는 종교개혁의 모든 교회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일반서적과 동일한 수준에 놓았으며, 성경의 神的權威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교회와 개혁자들은 다같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였으나, 이 권위의 성질에 관하여는 진적으로 일치하지 못했다. 로마교회는 성경이 교회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고, 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에 의존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마교회는 교회가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성경에 앞선다는 근거 하에서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 혹은 성령의 內住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벌써 교회는 과거에도 존재하였다. 교회가 없이는 성경은 산출될 수도 없고, 전파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로마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조항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주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였으나, 그들의 권위개념은 복음적인 개신교의 권위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遺傳을 성경과 동일한 영예의 자리에 두어왔다. 遺傳은 교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흔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성경의 著作들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그 著作들을 기록하며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교회로부터 그 존재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존되며 해석되고 변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으나, 성경이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로마교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한 목소리로 反對하였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고유한,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경의 독자적 신빙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믿어져야 한다. 그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러기 때문에 권위로서 인간에게 말씀한다. 성경의 교훈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교훈들은 하나님의 구속력을 갖는다. 영(Young)박사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역사적 기독교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어떤 神人間의 만남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은 권위적이다. 그 메시지가 강권적으로 나를 확신시키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은 권위적이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권위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그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다.”(E. J. Young, *Thy Word is Truth*. p.241).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증거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경의 고유한 권위와 정확성을 실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믿는 근본적인 근거는 아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 자체 때문에 믿는 것이며, 그 자체의 증거로 인하여 믿는 것이다. 교회의 반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경을 그 이상으로 권위 있게 만들지 못한다.

## II.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말씀의 의미를 고찰하고, 성경의 초자연적인 성격들을 지적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얻고자 한다.

## A. 말씀의 의미

성경에서 말씀(λογος, ρημα)은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로, 말씀은 권능의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엄숙하게 발표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철회될 수 없는 말씀이다(창 27장).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의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 1:3).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시 33:6).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히 11:3).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이적적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둘째로, 말씀은 계시로서의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 말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리켜 사용되었다. 여호와와 말씀은 사무엘과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임하였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삼상 3:7)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렘 1:2, 4).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렘 38:21).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될 계시로 임하였다. “이 말을 들으라”(암 4:1; 5:1).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

다”(시 119:105, 130). 주님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하셨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을 폐하는도다”(마 15:6).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계시 전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사용한 때에는 본체론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요 1:1).

셋째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며,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왔다. 구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한다 하였고(시 107:2), “영영히 서리라”(사 40:8) 하였으며, 또한 베드로전서 1:25에서는 이 말씀은 직접 복음으로 불려졌다. 그리스도인의 증생은 “썩어질 썩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하였다(벧전 1:23; 약 1:18).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요 15:3). 예수님께서 개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눅 5:1), 또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행 4:29).

넷째로 말씀은 성경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편 119편은 성문계시, 즉 성경을 가리켜 율법, 범도, 율례, 판단 또는 “하나님의 말씀”(105, 130)이라 불렀다. 그리스도는 이 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유전을 구별하였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6). 바울은 구약

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하였으며(롬 9:6), 한 개체적 구절을 “말씀”이라고 하였다. “은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갈 5:14; 롬 13:9).

이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말씀이며, 여기에는 물론 이상 세 가지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

### B.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첫째로, 그 내용의 통일성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많은 저자, 시간과 지역상의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에 있어서 내용과 사상의 통일이 있다. 30여명의 저자들이 1,500여년동안 원근각지에서 집필한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이다. 그들은 서로 결탁하여 공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사상에 있어서 장엄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본질은 이처럼 단일한 실체, 즉 성경의 유기성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한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인종, 죄, 구원의 방법, 세계와 인류의 운명, 인간의 의무와 본분을 설명한다. 성경은 하나의 교리 체계, 하나의 윤리적 표준, 하나의 구원의 계획, 하나의 시대 순서를 가르친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속의 성취를 보여준다.

창세기는 죄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생명수로부터의 끊어

짐, 죄의 저주, 구원의 약속, 그리고 구속의 첫 단계를 보여준다. 계시록은 죄의 절멸, 인간의 돌아옴, 천성문의 열림, 생명수의 허용, 죄에 대한 승리, 약속의 성취, 그리고 구속의 마지막 계단을 보여준다.

성경의 중심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경의 열쇠요 초점이다”(J.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p.84).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통일성을 찾게 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는 복음의 전주곡이다.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대백보좌 심판대에 앉아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 구약의 언약들은 신약에서 절정에 달한다. 성경은 세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이미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초자연적인 인격에 대한 초자연적인 증인이다.

둘째로, 성경의 적응성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향해 말한다. 인간의 이성을 위하여 율법과 서신들이 있고, 애정을 위하여 시편과 복음서들이 있으며, 사상을 위하여는 선지서들과 계시록이 있다. 그 다양성은 사람의 마음을 끈다. 법률, 문학, 예술은 다 성경의 모형적 감회들이다.

성경은 인간의 정욕과 싸우며, 그 죄책을 폭로하고 인간의 교만을 낮춘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며, 사죄의 방법을 제시하

고, 삶과 죽음에 위안과 약속을 줌으로써 영혼의 가장 깊은 요구에 응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죄의 기원, 회복의 방법, 내세의 확실성, 내세에 있어서의 상급과 형벌의 원리들을 가르쳐 준다. 이런 것들을 자연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계급, 모든 영혼에게 동등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는 빈부와 귀천의 구별이 없으며, 노소와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성경의 도덕적 교훈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성경의 윤리는 세계 어느 윤리보다 가장 고상하다. 십계명(출 20:1~17)과 산상보훈(마 5~7장)에 성경윤리의 그 기초적 원리가 진술되어 있으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대계명(마 22:37~40)에 그 중심 사상이 요약되어 있다.

성경의 윤리는 인간의 모든 의무를 다 포함하며, 동시에 모든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은 가정과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고 겸손을 장려한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승리를 격려한다(딤후 6:12; 롬 8:37). 성경은 또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하여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정권)들에게 굴복하라”(롬 13:1~7)고 권유한다. 성경의 이와 같은 교훈에서 우리는 나라의 자유와 애국적 방어의 근거를 찾는다.

성경의 윤리는 단순히 규칙들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

고, 원리들을 가르치며, 그 원리들을 종교와 연결하여 인간의 모든 의무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대계명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경의 윤리는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실천력에 있어서 그 어느 윤리 체계보다 월등하다. 성경의 윤리는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완전하신 생활을 최고의 도덕적 모범으로 제시하고, 율법 순종의 동기를 제시하는 동시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의 가능성을 가르친다.

넷째로, 이적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적은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성경의 역사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큰 이적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역시 큰 계시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계시에 이적의 증거가 수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적은 새로 전달된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유인(환기)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전달과 함께 수반된 이적들이 옛날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구성하는 성경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든 세대에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直接傳達를 통하여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말하게 된다. 예언이 하나님 계시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때에 이루어진다. 예언의

증거는 새 성취가 있을 때마다 그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성경의 예언들은 미래의 일을 상세하게 보았으며, 또한 성취되기 오래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神의起源을 의문할 여지가 없다. 그 예언들은 인간의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된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뜻있게 읽고, 성취된 사실을 뜻있게 살펴본다면,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메시아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특수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다. 구약의 시종일관한 예언은 그리스도와 그의 종교가 나타나기 벌써 오래 전에 상세하게 발표되었는데,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에서 세계적 종교가 일어날 것과 그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영광스러운 것을 예언하여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수사건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도 매우 신기하다.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겔 28장), 애굽과 여러 도시에 대한 예언(겔 29:12, 15; 30:12~16; 사19:5~6), 바벨론에 대한 예언(사 13:19~22; 렘 51:26, 43), 에돔에 대한 예언(겔 35:7; 욥 18장; 겔 35:3~4; 25:13), 블레셋 여러 성에 대한 예언(슥 2:5, 6; 2:4~7; 렘 47:5), 유대와 그 여러 도시에 대한 예언(레 26:33; 므 1:6; 3:16; 마 11:23; 눅 21:24) 등은 자세하게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영존과 확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인의 복음주의에 관한 신약의 예언들도 훌륭하게 성취되었다. 예언성취의 이같은 기발한 예증들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성경의 실천적 감화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성경이 인류문명에 끼친 감화는 대단하다. 異敎는 개인의 중요성, 상호간의 사랑의 법칙, 생명의 신성함, 가정의 존엄, 일부일처와 종교상의 남녀평등, 신앙과 행위의 동일시와 같은 원리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다. 성경의 교훈이 실현되는 곳마다 개인의 성격과 행복에 끼쳐준 감화는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성경은 성경의 진리를 믿으며,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정화하고, 마음(心淸)을 성화하고, 비애를 진정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병자를 위안하고, 약자를 강화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경건을 독려하고, 소망을 충동하고, 공포를 극복케 하고, 기쁨을 일으키고, 노래를 격발하고, 臨終시에 평안을 주고, 사망에 승리를 주었다.

### C.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2절은 66권의 성경을 열거하고 성경의 내용을 밝힌 다음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되었다”고 설명한다. 성경이 신앙의 법칙으로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결정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교의 체계를 찾으며, 생활의 실제적 규범을 탐구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리문제나 윤리문제로 쟁론

이 일어날 때에는 성경을 최고 법정으로 하여 거기에 호소한다. 성경이 만일 영감으로 된 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숭고한 권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1. 성경은 그 자체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다.

a. 영적 성전인 교회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건설되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2).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구속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으로 교난을 당하시고 율법을 지키심으로 나타내신 구속의 은혜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은혜의 저장소인 신구약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b.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 4:2). 성경 전체가 선지자, 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c.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항상 그 당시 있었던 기록된 성경만을 권위로 여기고 여기에 호소하였으며, 다른 데서 신앙의 법칙을 찾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에 호소하였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4).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의 지식을 성경에서 얻는다고 하였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바울은 또한 모든 종교적 도덕적 훈련에 있어서 성경의 유익이 절대적이라고 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

d.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무엇을 추가하고 성경을 악용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7~9; 막 7:5~8 참조). 모세와 요한도 성경에 무엇을 가감하는 것을 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 12:32).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이처럼 성경의 가감을 금지한 것은, 성경이 신적이며 완전하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으로 존중함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e. 구약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1:1, 2). 신약은 베뢰아 사람들이 비록 사도들의 교훈이라도 그것이 옳은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성경을 이처럼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법칙으로 삼으며 사랑하는 생활은 의인의 생활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 2. 신앙고백서들도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법칙임을 말한다.

프로테스탄트의 모든 교회들은 일치하게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이다”라고 가르친다. 루터교회의 스말칼트신조(Smalcald Articles)와 일치신조(Form of Concord), 개혁교회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Confessio Helvetica II), 프랑스의 갈리아 신앙고백서(Confessio Gallicna), 영국교회의 39신조, 그리고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항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모든 신앙고백서들이 가르치는 요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에 관한 모든 일에서 신적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교리, 사실, 교훈에서 전혀 오류가 없다.

둘째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되도록 계획된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포함한다.

셋째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때문에, 어떤 무오한 해석자의 도움없이도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백한 책이다(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 pp. 151~152).

## 3.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과 유전

로마교회는 성경과 함께 유전(tradition)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 그것은 유전을 성경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유전은 교회를 통하여 전승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이다.

유전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진리를 추가적으로 가르치며, 또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교회는 신적으로 구성된 성경과 유전의 보관자이며 재판관이라고도 말한다. 그들이 유전을 옹호하는 데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성경이 유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이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살후 2:15).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살후 3:6).

둘째로, 초대 교부들이 유전의 권위를 단언하고, 그들의 신앙을 대부분 이 유전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셋째로, 교회를 통하여 전승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은 명확히 탐지될 때 그들의 저서들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성경 자체가 유전의 증거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래된 것이다.

넷째로, 성경은 모호한 대가 있어서 유전을 그 해석자로 필요로 하며, 또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교리들과 제도들이 유전에 기초한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성경과 함께 유전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경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전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테살로니가 후서 2:15과 3:6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유전이 아니라, 그가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시달한 자신의 기록된 교훈이었다. 한편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유전을 숭상하는데 대하여 명백히 책망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3, 6; 역시 막 7:8 참조).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전교리를 시인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로마교회는 성경의 보충으로 유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유전을 우리 신앙의 법칙으로하여 성경을 보충하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명백하고 충족한 책이지만, 유전은 성질상 불확실하여 여러 가지 오류들과 혼합되기 쉽다. 그들은 사도시대 이후 300여년 동안의 유전들 중 어느 하나의 유전에 대해서도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마저도 매우 약한 것이 아

니면, 전혀 반대되는 증거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4세기에 있었던 교훈이 3세기나 1세기에도 교훈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추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사직이나 미사와 관련된 유전들은 대부분이 성경의 사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들이다.

### III. 聖經의 起源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靈感과 無誤를 논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계시를 정확히 전달하여 영원히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셨다.

영감교리는 성경계시에 관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의 기초적 원리이다.

#### A. 성경의 靈感

##### 1. 영감의 정의

“영감”이란 무엇인가?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이 옛날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그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들이 사용한 단어까지도 지도하시어 모든 오류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다.”(Louis Gaussen,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s*, trans. David D. Scott, p.319). 고센의 이 정의는 1830년 이후 보수주의 권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성령께서는 글쓰는 데 사용된 자료들과 말들을 선택하도록 감독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독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워필드는 영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하게 하신 그의 초자연적인 감화이다”(Benjamin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131). 최근에 에릭슨 교수도 “성경의 영감이란,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의미한다”(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vol.I. p.199)라고 정의 하였다.

이상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하게” 우리는 그들이 저술한 성경을 경외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Com. II Tim 3:16; Inst., I. 7.1).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전적으로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확한 방법으로 선포하며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경저자들은 성령의 진정한 필기자이며(Inst., IV.8.9).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만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게 하셨다(Inst., I.6.3).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기구이며, 그들 자신에 대하여 말하되, 오직 하늘에서 선포하도록 위탁받은 것만을 말하였던 것이다(Com. II Tim 3:16).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Inst., II.8.12)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칼빈은 역설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디모데 후서 3:16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θεόπνευστος)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God-breathed)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불어넣어져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θεόπνευστος 라는 이 헬라어는 분명히 성경의 신적기원과 권위개념을 전달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 신구약의 영감사상

### a. 구약의 성경관

구약의 일관된 사상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호 1:1, 암 1:3; 미 1:2; 말 1:1). 선지자를 가르키는 히브리어 나비(נבי)의 근본의미는 代言者, 즉 백성에게 말하는 자(Spokesman)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선지자는 결코 자기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었다. 따라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만을 전달하였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신 18:18).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할 뿐이었다. 발람의 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민 22:38).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말할 수 있었던 그 불쌍한 나귀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선지자로서 아무 것도 말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 예언은 발람이 원했던 예언은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예언은 발람이 약속한 선물을 받는 것과 관계된 예언이었다. 만일 발람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자기 예언을 부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수정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는 대 메시아 예언 중의 하나를 선포할 수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민 24:17).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영감하신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이 영감을 의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등이다. 이와같은 표현은 구약에서 3,808회 이상 나타난다.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서에서 만도 120회나 나타난다. 이사야는 자기가 쓴 예언을 “여호와와 책”이라고까지 말하였다(사 36:16).

이와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430회, 에스겔서에서 329회, 아모스에서 53회, 학개서에서 27회,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53회나 보게 된다(cf. Rene Pache,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Scripture*, pp.81~82).

구약의 저자들은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쓰도록 계속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세(출 17:14), 이사야(사 30:8), 그리고 예레미야(렘 30:2)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밖에도 출애굽기 34:27; 민수기 33:2; 이사야 8:1; 예레미야 25:13; 에스겔 24:1 이하, 그리고 다니엘 12:4 등에서도 우리는 같은 명령을 듣게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된 계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 같은 정확성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때 그들을 인도한 영감에서도 볼 수 있다. 만일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시고, 그 예언을 기록할 때에는 통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된 계시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정확성을 자신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선지자를 영감하실 때에도 역시 인도하신 것이다(Stewart Custer, *Does Inspiration Demand Inerrancy?* pp.19~20).

#### b.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성경관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자주 구약에 호소하고, 구약을 正確無誤한 권위로서 인정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ἡ γραφή(성경, 막 12:10; 눅 4:21; 요 19:36), 혹은 ἱερα γράμματα(성경들, 딤후 3:15)로 불렀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의 표현으로 보고, 성경에 대한 호소를 모든 변론의 종결로 삼았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경관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시종일관 사실에 대한 참된 기록으로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마 19:4, 5), 가인과 아벨(눅 11:51), 노아와 홍수(마 24:37~39; 눅 17:26, 27),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마 10:15; 11:23, 24), 롯의 경험(눅 17:28~32), 모세(마 19:8; 막 7:10), 진설병을 먹은 다윗(마 12:3, 4; 눅 6:3, 4), 솔로몬의 영광(마 6:29; 눅 11:31), 엘리야와 사렙다의 과부(눅 4:25, 26), 엘리사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눅 4:27), 그리고 요나와 큰 물고기(마 12:39~41; 눅 11:29~32) 등의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셨다.

② 그리스도는 교리와 윤리적인 문제를 구약에 호소하였다.

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율법에 호소하여 진정시키셨으며(마 22:29~32; 출 3:6), 종말에 있을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문제를 다니엘 9:27; 11:31; 12:11에 호소함으로써 명백히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윤리적인 권위서로 보셨다는 것은 그가 자주 구약을 인용하여 도덕적 가치와 행위의 문제를 설명하신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보스(G. Vos)는 예수님께서 윤리와 관련하여 율법을 취급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예수님은 율법의 소리를 한 번 더 모든 계명에서 들을 수 있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만드시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인간행위에 중요하며, 또한 전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삼으셨다”(The Teaching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pp.61).

③ 그리스도는 성경의 언어 자체를, 심지어는 “일점일획”도 다 영감받은 말씀으로 다루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 18).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의 권위는 가장 적은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다.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 “일점”이라는 말은 “요드”(י)라는 말인데, 이 요드라는 글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이다. 그리고 “일획”(קריא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작은 획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영어의 O자를 Q자로 변경시켜주는 한 작은 획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 문자 가운데는 한 점(點)으로 된 글자도 있고, 획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를 구별하는데 아주 사소한 차이를 갖고 있는 문자도 있다. 그러한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다. 그 이유는 구약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주제는 성경기록의 필연적인 성취였다(마 26:31, 54; 막 9:12 이하; 14:19, 27; 요 13:18; 17:12).

④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을 예언적으로 권위있는 책으로 인정하였다.

예수님은 성경예언의 권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 24:44). 공관복음서에서 성취된 예언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22, 23(사 7:14); 마태복음 4:13~16(사 9:1, 2); 마태복음 11:10(말 3:1); 마태복음 12:17~21(사 42:1~4); 마태복음 13:14, 15(사 6:9, 10); 마태복음 21:4, 5(슥 9:9); 마태복음 24:15(단 9:27); 마태복음 26:31(슥 13:7); 그리고 마태복음 27:9, 10(슥 11:12, 13; 렘 32:6~9) 등이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구약은 진리요, 권위적이며, 영감된 책이다. 그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요, 구약의 교훈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이다.

둘째로, 사도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25, 26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우리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시 2:12)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구약이 영감된 책이라고 믿고, 벨릭스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행 24:14).

사도들은 자신의 복음사역을 변호하면서 구약 역사의 신뢰성을 증명하였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구약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열거하였다(행 7:2~47).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들에게 출애굽의 역사(행 13:17), 광야 생활(18절), 가나안 일곱족 속의 멸망(19절, 사사들(20절),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20~22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더욱이 사도들은 구약예언의 권위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들은 일어난 사건들이 구약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주장하였다(행 1:16, 17; 2:16

~21; 3:21~23).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人格化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았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롬 9:17).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9:16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디모테 후서 3:16은 성경의 영감을 강조하는 가장 뛰어난 구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신구약 성경이 동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God-breathed)는 뜻이다. 이 말은 성경의 神的 起源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신 자신의 뜻을 성경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신빙성과 권위를 믿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역시 여러 편지에서 신약성경의 신적 기원과 그 권위를 증명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고후 13:3)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고전 14:37)고 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록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으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

사도 요한의 저작들도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가르친다. 모세의 기록(요 5:45~47)이 성경과 동일시 되었으며(39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워졌다(38절). 계시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그가 본 것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벵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교회에 보내라”(계1:10, 11).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계시록 전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상임을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 요한은 계시록을 끝내면서 예언의 말씀을 加減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말(히 4:4)과 다윗의 말들은 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용하였다. 그는 세 번이나 시편과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한 말씀들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였다(히 3:7~11; 10:15, 16; 10:17). 베드로 후서 1:19~21은 성경의 영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경의 모든 예언”(20절)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며, 그 내용은 광범위하게 예언적이다(행 3:21~25; 롬 16:26).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21절)고 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신적기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산출하신 방법까지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사람들을 기구로 하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셨다고 말한다. 성령의 사역으로 그들이 말한 것들은 성령의 것이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Warfield, *op. cit.*, pp.136~137).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교훈하였다는 말을 자주 보게된다(행 4:8; 13:9).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들은 자기네 말이 역사인 것이든 의무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없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너무도 정확하고 권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한 것보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갈1:8). 이처럼 사도들은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권위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고전2:4, 13).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살전 2:13).

### 3. 성경영감의 방법과 범위

#### a. 영감의 방법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영감되었는가. 영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걸작이라고 말한다. 천재적인 예술가, 저술가, 시인, 음악가들이 독창적인 걸작들을 만들어 내듯이 종교적인 천재들도 성경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큰 환상에 대한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그들은 호머의 오딧세이(Homer's Odyssey), 모하멧의 코란경(Muhammad's Koran), 단테의 신곡(Dante's Comedy), 셰익스피어의 비극(Shakespeare's Tragedies), 그리고 힌두교의 경전들(the Sacred Books of the Hindus)과 같은 수준의 문헌을 쓸 수가 있었다. 성경은 아마도 모든 책들 중의 최고의 걸작이며 고대의 진기한 문헌이며, 인간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세계적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유오한 책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되어진 책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自然的 靈感說은 인간의 저작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성경의 참된 영감을 부정하였다.

어떤이들에 의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썼다고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말씀으로 그의 사상을 기록한 단순한 성령의 筆記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정신활동은 중지되어 그들 저술의 내용과 형태에는 어느 면에서도 공헌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문체까지도 성령의 문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성경저자는 테이프 레코더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피동적이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전혀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으며, 성령이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한 음절 한 음절 기록하였을 뿐이다”(Richard Hooker, *Works* II, p.383).

이 기계적 영감설(Mechanical Inspiration)은 회교도들이 코란경에 대해서 갖는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코란경은 이미 하늘에서 아랍어로 한자 한자 완전히 기록되어 이 세상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글자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교도들은 코란경 번역에 힘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모하멧에게 처음 주어진 그 수수한 경전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경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Edward J. Young, *Thy Word is Truth*, p.114 참조).

이와같은 기계적 영감설의 입장은 전혀 지지받을 수 없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만 피동적인 기구가 아니고, 참된 저자였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밝혀진 바다. 어떤 때에는 그들은 역사적 연구의 결과를 명백히 제시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누가 복음 1:1~4에서와 같이 조사한 것을 말하고, 때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등 여러 책에서와 같이 그들의 史料를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또한 시편이나 예언서, 사도행전이나 서신 등에서도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각각 자신의 개인적 문체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사야의 문체는 에스겔의 문체와 같지 않고, 바울의 문체도 요한의 문체와 같지 않다. “성경의 저자들은 기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의식은 상실되지 않았다. 그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하였다. 그들은 사람이지만 기계가 아니었다. 무의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기구로 사용하신 살아있고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인간이었다. 더욱이 영감은 인간의 정신기능을 중단하거나 억제



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특수한 정신적 특징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I., p.157).

또 어떤이들은 기계적 영감설을 반대하고, 力動的 靈感說(Dynamic Inspiration)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슐라이허막허(Schleiermacher, 1768~1813)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영감설이다. 이 학설의 특징은 성경기록에 있어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보다는 저자의 一般 靈感을 강조한 점이다.

성경저자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활동하였으며, 계시의 영역에서 생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격, 사상, 언어에서 성화 되었고, 그 성화의 감화는 자연히 그들의 저술에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을 영감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 감화를 받아 저술된 성경 문서들은 자연히 그의 정신을 호흡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영감은 대체로 신자의 靈的啓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학설은 분명히 성경에서 초자연적 특징을 박탈하고, 성경을 일반계시의 선까지 끌어내려 성경의 무오성을 파괴하였다.

그러면 영감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개혁파 권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감설이 있는 데, 그것은 유기적 영감설(Organic Inspiration)이다.

이 설은 또한 逐字 靈感說(Verbal Inspiration)이라고도 하고, 完全 靈感說(Plenary Inspir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축자영감”은, 영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술어인데, 이 말은 성경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역시 성경의 문자 하나 하나가

지도 다 영감되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데서 온 것이다. 성경은 그 전체가 문자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 내용이 영감되었다면 또한 그 사상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도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축자영감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저자들로 하여금 기계적 영감설에서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쓰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자들이 용어와 표현을 선택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저들의 단어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것이다.

이 축자영감의 교리를 기계적 영감설과 동일시 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학자들은 “완전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말은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 모든 부분에 확장되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적인 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시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통하여 오되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치 않으시고, 또한 기록시키려는 단어들을 저자의 귀에 불어 넣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의 내면적 범칙과 잘 조화시켜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성경의 영감은 생명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품성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법 등,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 유기적 사역이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저들을 고무하여 저술케 하시되, 저들의 저술 활동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억제하시며, 또한 저들을 지도하여 용어를 선택하고 저들의 사상을 표현하게 하였다.(Berkhof, *op. cit.*, p.153) 그러므로 저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은 저들의 작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성경 저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인과 선지자들의 장엄한 시, 역사서의 일반적인 산문, 이사야의 순수한 히브리어, 다니엘의 아람어, 바울의 변증적인 문체, 요한의 단순한 용어 등을 우리는 성경 각 권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은 저들의 작품에서 문체와 용어를 통하여 자기네 개인적 흔적과 시대적 흔적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Ibid.*).

성경 저자들은 또한 기록할 사건들을 미리 연구하여 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4과 같은 경우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역사적 탐구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약의 서신들은 시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저자들은 흔히 저들의 경험, 죄와 용서(시 32편과 51편), 환경의 위험과 은혜로운 구출(시 46편과 116편)을 노래하였다. 이렇게 성경 저자들은 자신의 문체에 따라 썼고, 그들 자신의 개인적 특징과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특징을 그 저술에서 나타냈기 때문

에, 성경 각 권에는 개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유기적 영감설은 분명히 성경의 표현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영감설이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들을 기계적 영감설에서 처럼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참 저자로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영감에 의하여 신적요소와 인간적요소가 잘 조화되어 완성된 책이다(Cf. Gordon Lewis, *op. cit.*, pp. 259~264). 웨스트코트(B. F. Westcott)는 성경이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수한 책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용변적으로 역설하였다. “성경은 권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성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Brooke Foss Westcot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Gospel*, p.8). 그러나 명심할 것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의 힘은 제 2차적이라는 사실이다. 성경 저자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메시지를 받아서 공포한 것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 영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섭리에 의하여 때가 되면 선포하게 될 메시지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변자가 될 사람들을 주의 깊이 훈련하시며 인도하셨다. 에드워드 영(E. J. Young)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성경 저술을 위하여 기구로 임명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요한, 바울을 준비하시고 높이 들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

역과 영감의 특별 사역은 서로 보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Edward J. Young, *Thy Word Is Truth*, p.70).

#### b. 영감의 범위

영감의 방법뿐만 아니라,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도 역시 견해의 차이가 다양하나, 여기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 두 가지를 진술함으로써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로, 영감은 성경 모든 부분(전 성경)에 확대되었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라고 말함으로 영감이 성경 전부에 확장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모든 성경” 혹은 “매성경”은 성경 전서를 의미할 것이다. 율법서와 역사서, 시편과 선지서, 복음과 서신이 모두 영감에 의하여 저술되었기 때문에 다같이 동등하게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ἡ γραφή, 막 12:10; 눅 4:21; 요 19:36)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성경의 책들을 “성경” 혹은 “성경들”(αἱ γραφαί, 눅 24:27; 롬 1:2, 혹은 ἱερά γράμματα, 딤후 3:15)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훈을 실증하기 위하여 자주 성경에 호소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호소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저자 몇 사람은 구약성경의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인용하였다. 이 사실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구약성경의 문서들과 동일하게 보았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5, 16).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 중 25권의 성경에서 끌어 온 인용문들이 있는데, 비록 그 인용문의 얼마가 역사서에서 취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두가 “성경”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곧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휴식하고 정신은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은 휴식하고 신적인 것은 활동한다든가, 혹은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면은 서로 침투하고 있으며, 이 상호 침투의 결과로 성경은 한편은 인간의 작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그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L. Berkhof, *op. cit.*, p.154).

성경의 영감은 성경전서의 영감만 아니라, 그 내용 전부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책이 동등하게 영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이 성경의 모든 책의 모든 내용에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덕적, 종교적 진리에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인 사실들에도 영감이 확장되었다. 그리스도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오류가 없는 참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교리적 사실과 큰 역사적 사실들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적은 사실들까지도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을,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일을, 또 어떤 사

람에게는 교리들을 쓰도록 선택하셨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영감사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기록한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 10:35)라고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그릇될 수 없음을 나타내셨다(Charles Hodge, *op. cit.*, pp.163~164).

그러나 18세기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감에 관한 막연한 학설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부분의 영감을 부정하고, 공통적으로 교리적 문서에만 영감을 한정시켰다. 이와 같이 교리적 문서에만 한정시킨 영감마저도 그들은 처음에는 성질상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마침내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과정으로, 곧 특수한 영적 계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저자들을 신빙할만한 증인으로 만들 수 있었으나, 역사적, 연대적 및 과학적인 모든 종류의 오류에는 반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영감의 정확한 범위에 관해서는 그들 사이에서도 일치할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리적 사실에 한정시키고,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에만 한정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한정시키고, 심지어는 산상보훈만이 영감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각자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되었으나,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아니하였다고 제멋대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성경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영감은 성경의 언어에도 되었다.

영감이 성경 전부와 그 내용 전체에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정경의 언어에도 미쳤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부와 전 내용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경의 문자들이 잘못 사용되었다면, 성경 전부와 그 내용 전체의 사상 표현과 사실 보도가 잘못되었을 것이니 어떻게 성경을 영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휘드 토마스(Griffith Thomas)는 “축자영감은 마치 성경저자들이 다만 피동적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기계적 구술(mechanical dict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기계적 구술은 영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W. H. Griffith Thomas, “Inspiration”, *Bibliotheca Sacra*, CXVIII, 469, January ~ March, 1961, p.43).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둘을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축자영감(verbal inspiration)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받아쓰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저자들이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의 단어를 무시하던가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던가 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학자는 이 설을 기계적 영감설과 동일시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완전령감설(Plenary Inspir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완전영감’은 성령의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 모든 부분에 확장되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적 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시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통하여 오되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축자영감’은 기록한 저자들을 둘러싼 성령의 감화는 사상만이 아니라 언어에도 확장되

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사상들이 정확무오하게 전달되었으며, 또한 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구였다는 것을 뜻한다(L. Boettner, *Studies in Theology*, p.11). 이 둘은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에 둘을 합해서 “완전축자영감”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박형룡, 『교의신학 서론』, pp.328~329).

축자영감 혹은 완전영감의 교리는 다음 몇 가지 실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성경의 충분한 확증을 받고 있다.

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기록해야 할 사건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단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형식으로 소개된 말씀들도 단어 없이 표현될 수 없었다(출 3:4; 4:6; 6:2; 7:1; 12:1; 레 4:1; 6:1, 24; 7:22, 28; 수 1:1; 4:1; 6:2).

②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입에 그의 말씀을 위탁하셨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9).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였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

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겔 3:4, 10, 11).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기록하여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의식하였으니 그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다 단어로 구성된 것이다.

③ 바울은 자기의 말을 영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말하거나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 특히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여러 말씀이 하나님이나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되었다.(1:5 이하; 2:11~13; 3:7, 4:4~5,7; 8:8; 10:15~17). 이렇게 사도들의 교훈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다.

④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35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라고 하시어, 성경의 문자영감을 직접 단언하셨고, 마태복음 5:18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시어, 문자영감만이 아니라, 자모들의 영감까지도 말씀하셨다. “점”은 히브리어의 자모중에서 제일 작은 요드(\*)이며, “획”은 히브리어 자모들을 서로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선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완전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축자영감의 교리는 고립된 소수의 성구들을 기초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여러 구절들을 보아도 결코 고립된 소수의 구절에 기초하고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워홀드는 “축자영감의 교리는 성경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주의깊이 확인한 폭넓은 성경적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만일... 성경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묻는다면 ... 그들은 틀림없이 축자영감설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179). 영감은 계시 사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의 정당한 사용 없이는 사상의 정확한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상은 단어들로 구성되며, 이 둘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사상과 언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의 변동은 곧 사상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무오는 하나님이 자신의 단어들을 선택하실 것을 필요로 한다”(Lorraine Boettner, *Studies in Theology*, p.12). 울박사의 말대로, 사상은 반드시 형태를 취하여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 B. 성경의 무오

이 교리는 성경 교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계시를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도록 그의 종들을 영감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이 그 계시의 믿을 만한 원천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무오의 의미

영감의 결과는 無誤이다. “무오라는 말은 속인다거나 그릇·인도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빙할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그 교훈 전체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딤후 1:2).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살아 있다고 하였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23~25).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시 119:89). 그러므로 성경을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오라는 말을 사용한다. 주님은 친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 10:35)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7; 참조 마5:18)고 말씀하시어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무오하시기 때문에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무오성은 하나님의 무오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오하신 하나님의 무오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의 신적 기원과 둘째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성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무오라는 용어의 가치는 그것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원리를 보존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참되고 믿을만한 진술이 못된다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J. L.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pp.94~95).

영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오성을 내포한다. 이것은 하지와 워홀드의 입장이다. 그들은 영감과 무오를 동의어로 보았다. 성경은 본래 거짓말할 수 없으며 비진리의 저작이 될 수 없다. 성경이 전적으로 영감되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무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성경

의 어떤 부분이 무오하지 않다고하면 그 부분은 영감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영감이 오류의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하면, 영감은 더 이상 영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성경의 저자들이 무오한 인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우리는 유오한 인간인 그들이 쓴 성경에 대하여는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만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존 머리(John Murray)는 이 견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인간의 오류 때문에 무오한 성경을 산출할 수 없게 하였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무오한 성경을 전혀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만일 이러한 기관이 유오하다고 하면, 마땅히 그러한 오류를 모든 성경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오성이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표현된 ‘영적 진리’에 적용된다면, 그때 명백해 지는 것은 마땅히 어떤 비상한 신적 감화가 작용하여, 표현된 진리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것이 틀림없다. 만일 하나님의 감화가 어떤 부분에서 역사하셨다면, 어찌서 그와 똑같은 보존의 능력이 성경 모든 부분에서도 역사하지 않았겠는가?”(John Murray, “The Attestation of Scripture” in *the Infallible Word*, ed. N. B. Stonehouse and P. Woolky. pp.4~5).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의 영감을 믿으면서도 무오성에 회의론을 품는 자들이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얼(Ralph Earle, ‘Futher Thoughts on Biblical Inspiration’ in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Winter, 1963), pp.7~17). 홀러(Daniel P. Fuller, “Benjamin B. Warfield View of Faith and History” in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Spring, 1893. pp.75~83)와 같은 학자는 영감과 무오를 엄격히 구별하여, 영감은 믿으나 무오성은 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부릭스(Charles A. Briggs, *The Bible, the Church and Reason*, pp. 91~95), 벌카워(G. C. Berkouwer, *Holy Scripture*, trans, and ed, Jack Rogers). 라저스(Jack Rogers, “The Church Doctrine of Authority” in *Biblical Authority*, ed. Jack Rogers). 휴버드 (David Hubbad “The Current Tensions: Is There a Way Out?” in *Biblical Authority*, ed. Jack Rogers), 그리고 블로쉬(Donald G. Bloesch, *Essential of Evangelical Theology: God, Authority and Salvation*, pp.67~70)와 같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사랑하면서도 성경에는 각종의 불확실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의 무오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inspriation, indefectibility, infallibility, indeceivability, 그리고 inerrancy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infallibility와 inerrancy를 구별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어왔다. infallibility라는 말은 inerrancy라는 말과 어휘상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최근에 이 용어는 제한적 영감(limited inspriation), 혹은 제한적 무오(limited inerrancy)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inerrancy라는 말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시”와 “구원”의 문제, 혹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만 inerrancy(무오)라는 말을 사용한다. 데이비스(Stephen T. Davis)

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성경은 그것이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거짓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만 무오하다”(Stephen T. Davis, *Debate About the Bible*, p.23).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다 무오(Inerrancy)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리덜보스(Ridderbos)는 무오라는 용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erman Ridderbos, “Attempt at Theological Definition, of Inerrancy, Infallibility, and Authority”,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32 and 33, January~April pp.27~41). 그리고 피녹(Pinnock)은 무오교리의 가장 유능한 옹호자이면서도 무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유보하였다. 그 큰 이유는, 첫째로, 현존하지 않는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는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특성을 이 용어는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Clark Pinnock, “Truce Proposal” p.4). 그래서 피녹은 inerrancy라는 말 대신에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궁극적 권위”(the divine inspiration and final authority of the Bible)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Ibid.*). 그러나 이상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inerrancy)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의 무오교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유는 단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위트머(John A. Witm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만일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과 무오교리가 교회의 역사적 교리이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라면,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즉 이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이 교리는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무자비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이 교리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답변은, 성경 그 자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John A. Witmer, “The Biblical Evidence for the Verbal-Plenary Inspiration of the Bible,” *Bibliotheca Sacra*, CXXI, 483, July - September, 1964, p.244). 보수주의자들이 이 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이신칭의, 혹은 그 밖의 다른 성경의 교리들을 양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Stewart Custer, *Does Inspiration Demand Inerrancy?* p.86).

우리가 이 영감교리에 굳게 관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인정하시고 증명하셨다는 확신 때문이다. 존 머리(John Murray)는 “무오교리의 부정은 성경에 대한 주님 자신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주님의 증거는 이 신앙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문제이다”라고 하였다(John Murray, “The Attestation of Scripture” in *The Infallible Word*, ed, by N. B. Stonehouse and Paul Woolley, p.40).

## 2. 무오교리의 역사적 배경

성경의 무오성의 교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적 교리이다. 물뤼스티아의 테오돌(Theodore of Mopsuestia)외에는 바나바, 로마의 클레멘트, 저스틴 마터, 아테나고라스, 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키프리아누스(Barnabas,



Clement of Rome, Justine Martyr, Athenagoras, Tertullian, Clement of Alexandria, Origen and Cyprian) 등 초대교회 교부들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되고 절대적으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다. 폴리깁의 제자 이레네우스(Irenaeus)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으로 말한 것임으로 완전하다”고 하였다(Irenaeus, *Against Heresies*, II, p.28).

어거스틴(Augustine)은 이 사실을 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성경의 정경서에만 그러한 존경과 영예를 돌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적으로 오류에서 자유하다고 나는 가장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이 책에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그 사본에 결함이 있던가, 혹은 번역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가, 혹은 나 자신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Augustine, *Letter* 82, 3.).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그들의 성경관에서 어거스틴의 전통을 계속 유지했다. 루터가 성경의 어떤 부분(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계시록)의 정경성을 유보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입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거스틴은 제롬(ST. Jerom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만이 무오하다고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매우 훌륭한 원리를 세워놓았다”(Martine Luther, *Werke*, Weimer edition, WA, Vol. 34, I, p.347. cited by John W. Montgomery, “Lesson from Luther on the Inerrancy of Holy Write” in *God’s Inerrant Word*, ed. John

W. Montgomery, pp.66~68). “성경은 그 자체가 모순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어리석고 완고한 위선자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다.”(*Ibid.*, vol. 9, p.356). “우리는 성경 전체를 성령에게 돌린다.”(*Ibid.*, vol. 54, p.35). “성령과 성경이 사용한 말뿐만 아니라 어법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다.”(*Ibid.*, vol. 40, III, p.254). 루터는 성경에서 명백한 역사적 불일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칼빈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근의 칼빈연구자들은 칼빈이 성경의 전적무오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두메르그(Emile Doumergue)와 그 밖의 학자들의 초기결론을 뒤집어 놓았다. 1952년 에드워드 다위(Edward Dowey, Jr.)는 학위논문에서 칼빈의 성경관은 본질적으로 하지와 위힐드의 성경관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항상 성경해석에서 발견한 오류들을 성경원본에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돌린다. 두메르그와 클레비어(Clavier),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칼빈의 자유로운 귀납적 해석방법을 성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구술설(dictation theory)과 반대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칼빈을 축자영감설의 옹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칼빈의 해석의 개방성을 그 증거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성경에 있는 모호한 것들은 신학적으로 인정되었다. 그것들은 성령께서 겸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호한 것들이나 분명히 잘못된 것들은, 영감받은 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오류가 성경에 있게 되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신학자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에 오

류가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불일치하게 생각되거나 부정확하게 생각되는 구절들을 설명하고 또 해석하여 끝없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평학자인 칼빈은 천진난만하게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잘못이나 과장된 것은 다만 무지한 목사자들에 의하여 지질러진 큰 실수일 뿐이다”(Edward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952, pp.103~4).

17세기와 18세기에 루터파와 개혁파의 정통신학자들은 성경의 전적 무오설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자주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도를 넘어서 성경의 저자들은 전적으로 피동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영감의 과정에서 성령에 의하여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술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의 전적무오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현대 유니테리언파의 선구자인 소씨니언파(Socinians)는, 성경의 영감은 다만 신앙과 행위에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알미니안파(Arminians)의 어떤 사람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원본이 직접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는 진리요 신적 권위의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서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에 진실하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윌헬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의 축자영감과 무오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 부리스(Charles Augustus Briggs)의 주장을 반박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입장이 축자영감과 무오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s*, 1931, pp.261~333).

미국의 대각성운동기의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어거스틴의 입장을 취하였다. 웨슬리(John Wesley)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만일 성경에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는 무수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성경에 하나의 거짓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 아닐 것이다”(John Wesley, *Journal Wednesday, July 24, 1776*). 요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의 성경관이 전적무오의 입장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한 것만은 틀림없다(Jonathan Edwards,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in *The Great Awakening*, ed. C. C. Geon, pp.226~288).

성경의 무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거스틴의 입장은 다윈의 진화론이 성경의 우주관과 인간론에 대해서 회의를 던질 때까지는 적어도 기독교 정통신학의 다양한 흐름속에서 표준적인 성경관이었다. 하지-윌헬드의 입장은 부리스가 주장한대로, 제한적 무오의 이전 전통에서 갈라진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입장의 재진술 일 뿐이다.

최근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전적무오의 입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카넬(Edward J. Carnell)의 ‘정통신학의 경우’(Case of Orthodox Theology)가 1959년 출간된 이후 오랫동안 주목하여 오던 일이었다. 카넬은 이 책에서, 성경에는 성경저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자료에서 온 오류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오류들이 아무 수정없이 그들에 의하여 편입되었다고 한 해리슨(E. F. Harrison)의 1958년의 시험적인 제안을 잘 다듬어 놓았다. 1960년 대에는 비글(Dewey M. Beegle)과 홀러

(Daniel P. Fuller)가 좀 더 발전된 제한적 무오교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였다(참고: E. J. Carnell, *The Case of Orthodoxy*, pp.102~10; E. F. Harrison, "The Phenomena of Scripture" in *Revelation and the Bible*, ed. Carl F. H. Henry, p.249; Dewey M. Beegle,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Daniel P. Fuller, "Warfield's View of Faith and Histor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II, 1968, pp.80~81). 1970년 중반에는 복음주의 주류안에서 비평적 관찰자들의 목소리가 근심스러울 정도로 높아졌으나 억제된 학문적 논의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74년 로잔대회(Lausanne Conference)에서 쉐이퍼(Francis Schaeffer)는 복음주의 진영에 이와 같이 제한적 무오교리가 빠져나가는 데 대하여 절박한 경고를 내렸으며, 린젤(Harold Lindsell)도 1976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성경을 위한 전쟁"(Battle for the Bible)에서, 성경에 대한 그 느슨한 교리와 손을 잡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을 하나 하나 지명하면서 중대한 위기를 부르짖었다. 쉐이퍼는 강한 성경관을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주의 세계의 분수령이라고 주장하였다(Francis Schaeffer, *No Final Conflict*, 1975). 린젤은 교회가 성경의 제한적 무오를 채택하게 되면, 마침내는 교회의 핵심교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Harold Lindsell, *The Battle for the Bible*, ch.8). 그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은 미국 기독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위한 제3의 전쟁이며, 첫 번째 싸움은 1890년대에 있었던 부릭스와 워필드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있었던 근본주의 논쟁이었다고 설명했다. 린젤은 또한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였다(*Ibid.*, pp. 141, 200). 이 경고의 강한 소리는 아직도 복음주의 사회에서 살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 칼빈의 설교와 개혁신학의 기초

김 재 성  
 <조직신학 · 전임강사>

### 서론

칼빈의 설교에는 당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종교개혁의 신학 사상핵심이 담겨있었고, 목회철학이 모두 깃들여 있었다. 제네바의 설교자가 성취하였고,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는 참된 설교에 관한 교훈들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오늘의 설교자들이 가져야할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교리의 개혁이요, 청당한 교회론의 회복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교회론의 정립은 성경의 권위회복과 권징의 혁신으로 이룩하여졌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 알도파와 후쓰의 지지자들을 엄단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해석과 성경 읽는 일을 일체 금지하였다. 거의 모든 청중들은 아무런